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에 근거한 초등 장애학생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 분석

성 경 선* · 방 명 애**

국립특수교육원 · 우석대학교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에 근거하여 초등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초등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 34편의 일반적 특성(연구대상, 연구설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중재효과)을 분석하고, CEC(2014)와 Horner(2005)가 사용한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에 근거하여 질적수준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 34편의 총 연구대상 수는 모두 74명이었으며, 남학생(64.9%)이 여학생(24.3%)보다 많았다. 장애영역은 지적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3편(6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설계는 중다간헐기초선 설계가 14편(41.2%)으로 가장 많았다. 종속변인은 수업참여가 14편(41.2%)이고, 문제행동이 12편(35.3%)이었다. 독립변인은 긍정적 행동지원이 8편(23.5%)으로 가장 많았다. 34편 연구에서 모두 중재효과가 있었으며, 유지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24편(70.6%)이었고, 일반화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8편(25.0%)이었다. 둘째,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에 근거하여 초등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교육이 실시되는 연구 환경, 중재자의 자격 및 배경정보, 종속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중재 충실도, 기초선, 내적 타당도, 사회적 타당도에 대한 질적 지표가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초등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에 대한 논의와 연구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증거기반의 실제, 초등학생, 통합교육, 장애학생, 단일대상 연구

* 제 1저자,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qwerr79@hanmail.net)

** 교신저자, 우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kdj-0729@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통합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p. 1)으로 정의를 하면서 통합교육에 대한 의미가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교육적 통합의 의미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통합교육 의미의 확대와 더불어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수교육연차보고서(2016)에 따르면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 2005년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59.8%에서 2016년 70.5%로 점차 증가하였고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51.2%가 초등학생이다.

이처럼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도 통합교육 현장에서 일반교사들은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김준홍, 남윤석, 2015), 여러 연구에서 통합교육은 기대했던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일반학교에 통합된 많은 장애학생들이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될 당하고(이동현, 박지연, 2011; Odom, Buysse, & Soukakou, 2011),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하며(오연, 방명애, 2013a, 2013b; Espelage et al., 2013), 소외감의 심화와 교육권 비보장이라는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Keith, Bennetto, & Rogge, 2015).

통합환경에 물리적으로 배치하는 것만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 자발적이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Yu, Ostrosky, & Fowler, 2012), 통합교육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김지선, 방명애, 성경선, 2016; Schwab, 2015). 최근 통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통합교육의 동향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봉세, 정동영 그리고 정윤우(2014)는 20년 동안의 통합교육 문헌들을 분석하여 통합교육 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고 정광조와 신현기(2015)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적 통합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김명희와 곽승철(2015)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실험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통합교육의 연구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통합교육에 대한 동향 및 효과를 분석한 위의 연구자들은 통합교육 전략들이 강력한 증거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증거기반 실제의 판단준거와 질적 지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CEC의 특수교육 증거기반 실제의 표준에 따르면 연구방법론적으로 적절한 연구가 되려면 맥락과 상황, 참여자,

중재 제공자, 실제에 대한 기술, 중재 충실도, 내적 타당도, 성과 측정/중속변인, 자료 분석 등과 같은 질적 지표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홍성두, 정광조, 2015). 증거기반 실제에 근거한 질적 지표가 강조되면서 국내에서도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를 적용하여 중재연구를 분석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김귀연 외, 2014; 김보람, 나경은, 2010; 서유진, 나경은, 2012; 서효정, 임혜주, 2015; 손승현 외, 2011; 지은, 안예지, 2016, 조상민, 오정민, 2016). 하지만 국내 통합교육 중재연구의 증거기반 실제에 근거한 과학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통합교육연구자들이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지표에 부합 되도록 양적 질적으로 더욱 확대되어 증거 기반 교육 실제로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김명희, 광승철, 2015).

특히 특수교육 분야는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고 강도가 높은 개별화된 중재를 필요로 하며, 동일한 명칭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개인 내 및 개인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단일대상 연구를 실시한 통합교육에 대한 증거기반 지도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김진호, 자체경, 2016; Odom & Strain, 2002). Horner와 동료들(2005)은 단일대상 연구가 중재의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합한 준거에 의거하여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증거기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 교수 실제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증거기반 실제에 근거한 연구는 효과가 입증된 중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재의 실패 확률을 낮추고 중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Haynes & Johnson,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를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에 근거하여 분석함으로써 국내에서 이루어진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의 질적 수준과 증거기반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에 근거하여 초등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에 근거한 초등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에 근거한 초등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의 질적 수준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검색방법 및 선정기준 ‘초등’, ‘통합교육’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6년도까지 국내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발표된 초등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단일대상 연구에 관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제한 한 이유는 전문적 동료심사를 거쳐 발표되어 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혜정, 김지영, 2013).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한국학술정보원, 학술교육원, 국회전자도서관, 교보스콜라, 학지사 뉴논문, 누리미디어)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어로 사용된 핵심어는 ‘초등’, ‘통합교육’, ‘장애’, ‘단일대상’, ‘상호작용’, ‘또래’, ‘중재 프로그램’, ‘협력’등 통합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1차적으로 검색된 논문 중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실험연구 104편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최종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첫째, 초등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통합 환경에서 중재가 실시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연구방법이 장애학생을 위한 단일대상 연구인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검색 기준을 적용한 결과 위의 선정조건에 적합한 34편의 논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34편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문소영, 홍주희, 김유리, 2016; 지은, 안예지, 2016; 장미순, 김은경, 2011)를 참고하여 연구대상, 연구설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중재효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으며,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은 장애영역, 참여인원 및 성별에 대해 분석하였고, 연구설계는 실험설계의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종속변인은 초등 장애 학생의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목표에 대해 분석하였고 독립변인은 초등 통합 환경에서 실시한 중재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재결과는 중재효과, 일반화 및 유지의 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1> 일반적 특성

내 용	
연구대상	장애영역, 참여인원, 성별
연구설계	실험설계의 유형
종속변인	초등 장애학생의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목표
독립변인	초등 통합환경에서 실시한 중재 전략
중재결과	중재효과, 유지 및 일반화

2)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

본 연구는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에 근거한 초등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의 질적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Horner(2005)와 CEC(2014)가 제시한 단일대상 연구의 질적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분석틀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Horner(2005)의 21가지 지표와 CEC(2014)의 22가지 지표를 통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10가지 영역에 대한 24가지 지표로 분류하였다. 지표에 대한 평가는 단일대상 연구의 질적 지표를 평가하기 위해 Jitendra, Burgess 그리고 Gajria(2011)가 사용한 3점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논문이 해당 질적 평가지표를 만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3점 척도로 분석하였으며, 지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않았을 경우 0점, 부분적으로 충족시켰을 경우 1점, 충분하게 충족시켰을 경우 2점으로 측정하였다.

3. 분석자간 신뢰도

제 1연구자(제 1분석자)와 특수교육 전공의 특수교직 경력 15년차인 특수교사 1명(제 2분석자)이 분석논문 중 5편을 독립적으로 읽고 각각의 항목의 평가에 대한 일치도 수준이 90%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하여 훈련하였다. 분석자간 일치도가 90%의 수준에 이른 후에 분석자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논문 11편(30.5%)을 두 사람이 각각 분석하여 신뢰도 계수를 구하였다. 분석자간 신뢰도는 일치된 수를 일치된 수와 불일치된 수의 합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분석자간 신뢰도는 92.8%로 나타났다.

<표 2>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

영역	질적 지표	Horner (2005)	CEC (2014)
연구 대상	1 연구대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나이, 성별, 지능, 장애명 등).	√	√
	2 연구대상자의 상세한 선별기준을 제공함(교육과정 기반 척도, IDEA 기준에 의한 판별, 교사 지명, 표준화된 지능검사, 평정척도).	√	√
연구 환경	3 연구 환경(학교유형, 학급유형, 방 배열, 학생과 교사의 수, 지리적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	√	√
중재자	4 중재자의 역할(교사, 연구자, 전문가, 부모, 또래 교사) 및 배경변인(교육적 배경, 면허)에 대해 설명함.		√
	5 중재자 자격(중재를 위해 요구되는 전문자격)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고함.		√
중속 변인	6 중속변인은 조작적으로 기술함.	√	√
	7 모든 중속변인에 대한 양적 측정가능한 지표를 마련함.	√	
	8 측정과정이 반복 가능하도록 기술되었고 타당함.	√	√
	9 중재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각 구간에서 최소 세 개의 자료점을 입증함.	√	√
	10 관찰자간 신뢰도 자료 수집과 신뢰도 수준은 최소 기준에 부합함 (IOC=80%, Kappa=60%).	√	√
독립 변인	11 중재과정(중재 구성요소, 교수적 행동, 중재자의 행동, 교수교재, 과정, 회기 시간, 중재기간)에 대해 설명함.	√	√
	12 실험을 통제하고 독립변인을 체계적으로 조정함.	√	√
	13 중재 충실도를 제공함.	√	√
기초선	14 중속변인의 기초선이 안정적으로 제공함.	√	√
	15 기초선 상태(중재방법, 기간, 빈도)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기술함.	√	√
실험통제/ 내적 타당도	16 세 번의 다른 시점에서 최소 세 번이상 실험효과를 입증함(반전설계의 경우 두 번이상 반전).	√	√
	17 내적 타당도 위험요소를 통제함.	√	√
	18 결과의 패턴이 실험통제를 증명함.	√	√
외적 타당도	19 실험효과가 대상자 간 환경 간 또는 자료 간 반복적으로 나타남.	√	√
	20 중속변인이 사회적으로 중요함.	√	√
사회적 타당도	21 중속변인의 변화크기가 중재효과를 증명함.	√	√
	22 독립변인 수행의 실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나타냄.	√	√
	23 독립변인이 일반적 환경, 확장된 기간에 수행함.	√	
자료분석	24 각 시점에서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단일대상 그래프를 제공함.		√

4. 자료처리

첫째,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에 근거한 초등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의 범주에 따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빈도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연구 변인 중에서 한 연구에서 두 가지 이상의 변인을 중복으로 다룬 경우에는 다중응답분석을 하였다.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변인은 장애영역, 중속 변인, 독립변인, 중재결과이었다. 다중응답분석의 결과는 빈도와 케이스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중재연구에 대한 분석 변인 중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변인값에 대한 해석은 성태제(2015)가 제시한 상관계수의 언어적 표현 기준에 근거하였다. 둘째,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에 근거한 초등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의 질적 수준을 <표 2>의 분석틀에 따라 3점 척도로 분석하였고 질적 지표 결과를 논문 수(n)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초등 장애학생의 통합을 위한 단일대상 연구 34편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일반적 특성

번호	저자 (년도)	연구대상 장애 영역		연구설계	중속변인	독립변인	중재효과			
		학생수 남	여				중재결과	유지	일반화	
1	김미경 김은선 (2005)	자폐성	2	0	AB	사회적 상호 작용	놀이	사회적 상호 작용향상	○	×
2	김미선 박지연 (2005)	지적	1	0	상황간 중다간헐 기초선	문제행동	긍정적 행 동지원	문제행동감소	○	×
3	이미현 박지연 (2005)	지적 중복	3	2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	상호작용	사회정서 프 로그램	상호작용향상	○	×
4	황인영 김수연 (2005)	지적	1	0	상황간 중다간헐 기초선	수업참여 문제행동 학업성취	교수적 수정	수업참여증가 문제행동감소 학업성취향상	×	×

* 성별 제시 안 됨

<표 3> 일반적 특성(계속)

번호	저자 (년도)	연구대상 특성		연구설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중재효과	
		장애 영역	학생수 남 여				중재결과	유지 일반화
5	이은정 이소현 (2006)	지적	1 1 0	상황간 중다간헐 기초선	수업참여	루브릭평가	수업참여증가	× ×
6	허승준 (2006)	ADHD 학습	4 * *	ABA	수업참여 상호작용	앵커드 수업	수업참여증가 상호작용향상	× ×
7	허승준 송명희 김정혜 (2006)	학습	2 2 0	ABA	의사소통	앵커드 수업	의사소통향상	× ×
8	권복남 최성규 (2007)	지적 ADHD	2 2 0	ABAB	상호작용	또래주도 미술활동	사회적 상호 작용향상	○ ×
9	김번영 박승희 (2007)	발달 지적	3 3 0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	문제행동 수업참여	교수적 수정	문제행동감소 수업참여증가	○ ○
10	김주혜 박은혜 이경순 (2008)	지적	3 3 0	대상자간중 다간헐 기초선	수업참여	협력교수	수업참여증가	× ×
11	이상경 김성수 (2008)	아스 퍼거	3 3 0	대상자간 중다 기초선	의사소통	또래참여 마음 읽기	의사소통향상	○ ×
12	이성일 (2008)	지적 청각 조음	3 2 1	AB	상호작용	또래놀이	또래관계향상	○ ○
13	이옥인 (2008)	지적	4 2 2	대상자간중 다 기초선	학습전략 학업성취	자기결정 학습모형	자기조정학습 전략능력향상 학업성취향상	○ ○
14	고승희 유은정 (2009)	자폐성	1 1 0	상황간 중다 기초선	문제행동 수업참여	교수적 수정	문제행동감소 수업참여증가	× ×
15	최문지 박은혜 김주혜 (2009)	발달 지적	3 3 0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	문제행동 수업참여	긍정적 행동지원	문제행동감소 수업참여증가	○ ×
16	허승준 장유영 안재영 (2009)	지적 정서 행동	3 1 2	ABA	적응행동	앵커드수업	수업적응향상 대인관계향상	× ×

* 성별 제시 안 됨

<표 3> 일반적 특성(계속)

번호	저자 (년도)	연구대상 특성		연구설계	중속변인	독립변인	중재효과	
		장애 영역	학생수 남 여				중재결과	유지 일반화
17	박민휘 백은희 (2010)	지적	1 1 0	상황간 중다간헐 기초선	수업방해 수업참여	긍정적 행동지원	수업방해감소 수업참여증가	○ ×
18	박혜진 신현기 (2010)	지적	1 0 1	상황간 중다 기초선	문제행동	긍정적 행동지원	문제행동감소	○ ×
19	이성용 김진호 차재경 (2010)	지적 지체	2 1 1	AB	상호작용	놀이	사회적 상호작용향상	○ ○
20	이옥인 (2010)	학습	3 2 1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	자기결정 행동	자기결정 기술	의사표현향상	○ ×
21	원상연 (2010)	지적	3 * *	상황간 중다 기초선	주의집중 수업참여 또래관계	앵커드수업	주의집중향상 수업참여증가 또래관계향상	× ○
22	김완숙 방명애 (2011)	지적	1 0 1	상황간 중다간헐 기초선	수업참여	루브릭평가	수업참여증가	○ ×
23	곽은정 신진숙 (2011)	지적	2 1 1	대상자간 중다 기초선	문제행동 수업참여	협력교수	문제행동감소 수업참여증가	× ○
24	문장원 (2011)	자폐성 지적 ADHD	3 2 1	대상자간 중다 기초선	수업방해	긍정적 행동지원	수업방해 행동감소	○ ×
25	민지영 김은경 (2011)	ADHD	1 1 0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	수업참여 공격행동	긍정적 행동지원	수업참여증가 공격행동감소	○ ○

* 성별 제시 안 됨

<표 3> 일반적 특성(계속)

번호	저자 (년도)	연구대상 특성		연구설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중재결과	
		장애 영역	학생수 남 여				중재효과	유지 일반화
26	강상성 이효신 (2012)	자폐성	1 0 1	상황간 중다 기초선	문제행동 학교생활	긍정적 행동지원	문제행동감소 학교생활 만족도증가	○ ×
27	정정은 이숙향 (2012)	지적	3 3 0	대상자간 중다 기초선	수업참여 학업성취	자기결정 학습모형	수업참여증가 학업성취도향상	○ ×
28	홍은숙 김의정 (2012)	지적	3 0 3	ABA	상호작용	음악활동	상호작용향상	○ ×
29	권지영 (2013)	지적 의사 소통	3 3 0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	상호작용 고립	사회적 기술훈련	상호작용향상 고립감소	○ ×
30	신효순 이원령 (2013)	자폐성	3 3 0	ABAB	상호작용 의사소통	놀이	상호작용향상 의사소통향상	○ ○
31	신혜순 김수연 (2013)	지적 정서 행동	2 2 0	상황간 중다간헐 기초선	과제수행	또래지원 상황이야기	과제수행향상	○ ×
32	서화자 이재선 이은진 (2014)	학습	1 0 1	ABA	또래관계 행동변화	또래상담	또래관계향상 긍정적행동 변화	× ×
33	부현숙 백은희 (2015)	학습	1 * *	상황간 중다 기초선	수업참여 수업방해	긍정적 행동지원	수업참여증가 수업방해감소	○ ×
34	박미정 김정연 (2016)	지 적	1 1 0	상황간 중다간헐 기초선	상호작용 의사소통	역할수행	상호작용향상 의사소통향상	○ ×

* 성별 제시 안 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은 장애영역, 참여인원, 성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대상	구분	논문수	%	계 (%)
장애영역	지적장애	23	67.6	47(138.0)
	정서 및 행동장애	6	17.6	
	자폐성장애	6	17.6	
	학습장애	5	14.7	
	발달장애	2	5.9	
	의사소통장애	2	5.9	
	청각장애	1	2.9	
	지체장애	1	2.9	
	중복장애	1	2.9	
참여인원	3명	14	41.2	34(100.0)
	1명	12	35.3	
	2명	6	17.6	
	4명	2	5.9	
성별*	남	48	64.9	74(100.0)
	여	18	24.3	
	성별 제시 안 됨	8	10.8	

* 성별은 인원수로 표시함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의 장애영역은 지적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3편(67.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정서 및 행동 장애학생(ADHD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자폐성 장애학생(아스퍼거포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각 6편(17.6%), 학습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14.7%)이었다. 그리고 발달 장애 학생과 의사소통 장애학생(조음 장애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각 2편(5.9%)이었으며, 청각 장애학생, 지체 장애학생, 중복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각 1편(2.9%)이었다. 이 중 두 가지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9편, 3가지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편이었으며, 이를 다중응답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참여인원은 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4편(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2편(35.3%), 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편(17.6%), 4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2편(5.9%)이었다. 분석대상 34편의 총 연구대상은 74명이었으며, 이 중 남학생 48명(64.9%)이, 여학생이 18명(24.3%)이었다. 그리고 성별표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 8명(10.8%)이었다.

2) 연구설계

본 연구의 연구설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연구설계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설계	논문수	%	계(%)
중다간헐기초선 설계	대상자간	7	41.2
	상황간	7	
중다기초설계	대상자간	5	29.4
	상황간	5	
ABA	5	14.7	34(100.0)
AB	3	8.8	
ABAB	2	5.9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설계는 중다간헐기초선 설계가 14편(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대상자간 중다간헐기초선 설계가 7편, 상황간 중다간헐기초선 설계가 7편이었다. 다음으로는 중다기초선 설계가 10편(29.4%)으로 많았고 그 중 대상자간 중다기초선 설계와 상황간 중다기초선 설계가 각각 5편이었다. 그 외에 ABA설계가 5편(14.7%), AB설계가 3편(8.8%), ABAB설계가 2편(5.9%)이었다.

3)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종속변인에 대한 분석결과

종속변인	논문수	%	계(%)
수업참여	14	41.2	53(155.0)
문제행동	12	35.3	
상호작용	10	29.4	
학업능력	5	14.7	
의사소통	4	11.8	
또래관계	2	5.9	
기타	6	17.6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속변인은 수업참여가 14편(41.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문제행동(공격행동, 수업방해행동 포함) 12편(35.3%), 상호작용 10편(29.4%), 학업능력 5편(14.7%), 의사소통 4편(11.8%), 또래관계 2편(5.9%)이었다. 그 외에 정서문제, 자기결정, 학교생활 만족도, 고립, 감정의 이해 및 표현, 긍정적 행동변화가 각각 1편으로 총 6편(17.6%)이었다.

4)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은 긍정적 행동지원이 8편(23.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또래매개가 5편(14.7%)이었으며, 놀이와 앵커드 수업이 각각 4편(11.8%)이었다. 그리고 교수적 수정이 3편(8.8%), 자기결정 학습모형, 루브릭 평가, 협력 교수 각각 2편(5.9%)이었다. 그 외에 사회정서 프로그램, 미술 활동, 마음 읽기, 음악 활동, 사회적 기술훈련, 상담, 상황 이야기가 각각 1편(2.9%)으로 총 7편(20.6%)이었다.

<표 7> 독립변인에 대한 분석결과

독립변인	논문수	%	계(%)
긍정적 행동지원	8	23.5	37(108.9)
또래 매개	5	14.7	
놀이	4	11.8	
앵커드 수업	4	11.8	
교수적 수정	3	8.8	
자기결정 학습모형	2	5.9	
루브릭 평가	2	5.9	
협력 교수	2	5.9	
기타	7	20.6	

5) 중재결과

본 연구의 중재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중재결과에 대한 분석결과

중재결과	논문수	%	계(%)
유지	24	70.6	33(94.1)
일반화	8	23.5	

34편의 논문 중 24편(70.6%)의 논문에서 유지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일반화 효과를 검증한 논문은 8편(23.5%)이었다. 이 중 유지효과와 일반화를 모두 검증한 논문은 6편(17.6%)이었다.

2. 증거기반 실제를 위한 질적 지표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에 근거한 초등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의 질적 지표 평가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

질적 지표	논문수(%)			
	0 (충족되지 않음)	1 (부분적으로 충족)	2 (충족됨)	
연구대상	① 연구대상에 대한 정보	0(0.0%)	1(2.9%)	33(97.1%)
	② 연구대상자 선별기준에 대한 정보	0(0.0%)	2(5.9%)	32(94.1%)
환경	③ 연구 환경에 대한 정보	10(29.4%)	4(11.8%)	20(58.8%)
중재자	④ 중재자의 역할 및 배경변인에 대한 정보	2(5.9%)	6(17.6%)	27(79.7%)
	⑤ 중재자 자격 여부에 대한 정보	14(41.2%)	7(20.6%)	13(38.2%)
종속변인	⑥ 종속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기술	3(8.8%)	9(26.5%)	22(64.7%)
	⑦ 측정 가능한 지수로 종속변인 측정	3(8.8%)	0(0.0%)	31(91.2%)
	⑧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정보	2(5.9%)	3(8.8%)	29(85.3%)
	⑨ 중재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세 개이상의 자료점 제시	0(0.0%)	0(0.0%)	34(100.0%)
	⑩ 종속변인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정보	3(8.8%)	0(0.0%)	31(91.2%)
독립변인	⑪ 중재과정에 대한 정보	0(0.0%)	1(2.9%)	33(97.6%)
	⑫ 실험자의 통제하에 체계적 운영	0(0.0%)	0(0.0%)	34(100.0%)
기초선	⑬ 수행과정 충실도에 대한 정보	17(50.0%)	2(5.9%)	15(44.1%)
	⑭ 기초선이 3회기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	4(11.8%)	9(26.5%)	21(61.7%)
실험통제/내적 타당도	⑮ 기초선 상태(중재방법, 기간, 빈도)에 대한 정보	4(11.8%)	8(23.5%)	22(64.7%)
	⑯ 세 번의 다른 시점에서 세 번이상 실험효과를 보이는 연구설계(반전설계: 두 번이상 반전)	4(11.8%)	0(0.0%)	30(88.2%)
외적 타당도	⑰ 내적 타당도의 위험요소 통제	4(11.8%)	20(58.8%)	10(29.4%)
	⑱ 실험통제를 입증하는 결과의 패턴	0(0.0%)	0(0.0%)	34(100.0%)
사회적 타당도	⑲ 대상자간 환경간 또는 자료간 실험 효과를 일반적인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제시	2(5.9%)	2(5.9%)	30(88.2%)
	⑳ 종속변인의 사회적 중요성	28(82.4%)	0(0.0%)	6(17.6%)
자료분석	㉑ 종속변인의 변화 크기 및 중재효과	24(70.6%)	0(0.0%)	10(29.4%)
	㉒ 독립변인 수행의 실용성과 비용 효과성	26(76.5%)	0(0.0%)	8(23.5%)
	㉓ 일반적 환경과 확장된 기간에 독립변인 수행	26(76.5%)	0(0.0%)	8(23.5%)
	㉔ 각 시점에서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단일 대상 그래프 제공	0(0.0%)	0(0.0%)	34(100.0%)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에 근거한 초등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의 질적 지표에 의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분석결과 ① ‘연구대상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33편(97.1%)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가 1편(2.9%)이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는 없었다. 그리고 ② ‘연구대상자 선별기준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32편(94.1%)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가 2편(5.9%)이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는 없었다. 둘째, 연구 환경의 분석결과 ③ ‘연구 환경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20편(58.8%)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가 4편(11.8%)이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가 10편(29.4%)이었다. 셋째, 중재자의 분석결과 ④ ‘중재자의 역할 및 배경변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27편(79.7%)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가 6편(17.6%)이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가 2편(5.9%)이었다. 그리고 ⑤ ‘중재자의 자격여부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13편(38.2%)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가 7편(20.6%)이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가 14편(41.2%)이었다.

넷째, 종속변인의 분석결과 ⑥ ‘종속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22편(64.7%)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가 9편(26.5%)이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가 3편(8.8%)이었다. ⑦ ‘측정 가능한 지수로 종속변인 측정’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31편(91.2%)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는 없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가 3편(8.8%)이었다. ⑧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29편(85.3%)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가 3편(8.8%)이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가 2편(5.9%)이었다. ⑨ ‘중재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세 개이상의 자료점 제시’에 대한 질적 지표는 모두 충족하였다. ⑩ ‘종속변인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31편(91.2%)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는 없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가 3편(8.8%)이었다.

다섯째, 독립변인의 분석결과 ⑪ ‘중재과정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33편(97.6%)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가 1편(2.9%)이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는 없었다. ⑫ ‘실험자의 통제하에 체계적 운영’에 대한 질적 지표가 모든 연구에서 충족되었다. ⑬ ‘수행과정 충실도’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15편(44.1%)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가 2편(5.9%)이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가 17편(50.0%)이었다. 여섯째, 기초선의 질적 지표 결과 ⑭ ‘기초선이 3회기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21편(61.7%)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가 9편(26.5%)이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가 4편(11.8%)이었다. ⑮ ‘기초선 상태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

하는 연구가 22편(64.7%)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가 8편(23.5%)이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가 4편(11.8%)이었다.

일곱째, 실험통제 및 내적 타당도의 분석결과 ⑩ ‘세 번의 다른 시점에서 세 번 이상 실험효과를 보이는 연구설계(반전설계: 두 번 이상 반전)’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30편(88.2%)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는 없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가 4편(11.8%)이었다. ⑪ ‘내적 타당도의 위험요소 통제’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10편(29.4%)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가 20편(58.8%)이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가 4편(11.8%)이었다. ⑫ ‘실험통제를 입증하는 결과의 패턴’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30편(88.2%)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가 2편(5.9%)이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가 2편(5.9%)이었다.

여덟째, 외적 타당도 분석결과 ⑬ ‘대상자간 환경간 또는 자료간 실험 효과가 일반적인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제시’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30편(88.2%)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가 2편(5.9%), 충족하지 않은 연구가 2편(5.9%)이었다. 아홉 번째, 사회적타당도의 분석결과 ⑭ ‘중속변인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6편(17.6%)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는 없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가 28편(82.4%)이었다. ⑮ ‘중속변인의 변화 크기 및 중재효과’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10편(29.4%)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는 없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가 24편(70.6%)이었다. ⑯ ‘독립변인 수행의 실용성과 비용 효과성’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8편(23.5%)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는 없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가 26편(76.5%)이었다. ⑰ ‘일반적 환경과 확장된 기간에 독립변인 수행’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가 8편(23.5%)이었고,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연구는 없었으며, 충족하지 않은 연구가 26편(76.5%)이었다. 열 번째, 자료분석의 분석결과 ⑱ ‘각 시점에서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단일대상 그래프’에 대한 질적 지표가 모든 연구에서 충족되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에 근거한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초등 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 34편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CEC(2014)와 Horner 외(2005)가 사용한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를 기초로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첫째, 연구대상의 장애영역은 지적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는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장애영역 중 지적 장애학생이 많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6), 통합교육이 일반교육과정 접근을 하는 만큼 그러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정도의 지적 장애학생 위주로 연구대상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김명희, 박승철, 2015). 연구에 참여한 인원은 3명이 가장 많았다. 이는 분석대상 논문에서 사용한 연구설계 중 대상자간 중다간헐기초선 설계와 중다기초선 설계가 많았으며, AB설계, ABC설계, ABAB설계에서 중재의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인원을 3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단일대상 연구의 문헌을 질적 분석한 선행연구(김귀연 외, 2014; 김민동 2015; Kokina & Kern, 2010)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대상은 총 74명이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 증거기반 실제에 기초하여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나이, 성별, 진단평가결과, 선정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CEC(2014)와 Horenr 외(2005)에서 제시한 질적 지표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설계는 중다간헐기초선 설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다기초선 설계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단일대상 연구의 증거기반 실제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김민동, 2015; 김진호, 차재경, 2016; 남혜진 외, 2015; 양영모, 허동희, 노진아, 2014; 이미애 외, 2008)에서 장애학생 중재를 위한 실험설계는 중다간헐기초선 설계와 중다기초선 설계가 많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다기초선 설계와 중다간헐기초선 설계는 개별장애학생의 집단 연구가 어려운 교육현장에서 유용하며, 여러 상황이나 행동에 중재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이소현, 박은혜, 김영태, 2009). 특히 중다간헐 기초선 설계는 중다기초선 설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행동, 상황, 또는 대상자들을 중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인력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중다간헐 기초선 설계와 중다기초선 설계는 세 번 이상의 다른 시점에서 최소 세 번의 실험효과를 입증할 수 있지만 내적 타당도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연구설계 단계에서 증거기반 실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문소영, 홍주희, 김유리, 2016).

셋째, 종속변인은 수업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제행동이 많았다. 장애 학생은 행동, 사회성, 학업 등의 어려움과 행동의 어려움을 보이며(이성봉 외, 2014), 이러한 문제는 장애학생의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김준홍, 남윤성, 2015) 장애학생의 수업참여와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는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초등학교 통합교육 실험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김명희와 곽승철(2015)의 연구에서 학업성취도가 종속변인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단일대상 연구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일대상 연구는 개별 대상에게 실시한 중재와 그 대상의 행동 변화간의 기능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수업참여나 문제행동과 같은 행동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이소현, 박은혜, 김영태, 2009). 종속변인이 증거기반 실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인에 대한 명료한 조작적 정의,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Horner 외, 2005). 종속변인의 측정과정은 반복 연구가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연구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간단한 서술식 기술 또는 측정 후의 결과만을 제시한 연구가 많았으며, 수업참여의 경우 수업참여행동에 대한 분명한 기준에 대한 제시가 미흡한 연구가 많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종속변수에 대한 정확한 기술화 함께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종속변수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과정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독립변인은 긍정적 행동지원이 가장 많았고 또래 매개, 놀이, 앵커드 수업이 그 뒤를 이었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모든 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문화와 강력한 행동지원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방법(Horner et al., 2009)으로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강조하는 통합교육의 흐름에 적합한 중재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긍정적 행동지원은 예방적 차원과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체계적, 예방적, 긍정적 행동중재접근이기 때문이다(Bradshaw, Mitchell, & Leaf, 2010) 통합교육을 위한 중재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김동일과 정광조(2005)의 연구에서는 통합교육 중재프로그램으로 놀이가 가장 많이 나온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최근 장애학생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 장애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환경체제를 변화시켜 장애학생이 문제행동 예방뿐만 아니라 교육적 통합도 함께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홍점숙, 방명애, 2014; 유현아, 방명애, 홍점숙, 2016; Flannery et al., 2013). 어떤 중재방법이 증거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첫째, 질적 지표를 충족하고 실험적 통제를 서술하며 전문가 상호심사 학술지에 출판된 단일 대상연구가 최소 5편인 실제이어야 한다. 둘째, 최소한 3개의 다른 지역에서 최소한 3명의 연구자에 의해 실행된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실제이어야 한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이다(박지연,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증거기반의 실체를 모두 충족한 중재프로그램은 없었다. 다만 긍정적 행동지원이 다양한 유형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므로 증거기반의 실제 구축을 위해 관련 연구들이 더 많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이 외의 다른 중재 역시 직접반복 및 체계적 반복의 시행으로 통합교육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증거기반의 지도방법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남혜진 외, 2015).

다섯째, 초등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단일대상 연구의 중재는 모두 효과가 있었으나 유지 및 일반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미비하였다. 통합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중재환경에서 벗어나 사회로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중재효과의 유지 및 일반화에 대한 결과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김유희, 방명애, 2015).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학급 또는 학교내에서만 중재가 이루어져 장애학생이 속한 생태학적인 다른 환경에서의 독립변인 실행이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학생의 경우 습득한 기술을 일반화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재효과가 다른 장소나 상황에서도 일반화 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김진호, 차재경, 2016). 또한 연구의 사회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장애학생이 속한 생태학적인 다른 환경에서의 독립변인 실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독립변인의 실행 기간을 늘리거나 물리적 및 사회적 맥락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김유리, 양영모, 노진아, 2015). 사회적 타당도는 중재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지표가 되므로 통합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지전략과 일반화 전략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

첫째, 연구대상 및 환경의 분석결과 통합학급 교사를 포함한 통합학급 전체가 연구대상에 참여한 연구에서는 통합학급의 특성, 학생수, 교사변인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나, 통합된 환경에서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중재를 실시 한 연구에서는 연구 환경의 특성을 생략하거나 단순히 장소만 보고한 연구가 많았다. 연구 환경에 대한 정보는 현장에서 중재의 반복여부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Horner et al., 2005) 통합학교 및 학급의 특성, 중재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핵심적인 특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통합교육이 실시되는 환경과 교육 현장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효과가 있는 중재라고 할지라도 통합교육 현장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통합환경에서 중재를 반복 실행 하여서 자료들이 축적되고 효과성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재자 영역의 분석결과 중재자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중재자의 자격 및 배경정보에 대한 정보에 대해 ‘연구자’ 또는 ‘교사’로 제시하여 통합교육 실행에 대한 통합교육경력이나 기타 중재 시 요구되는 배경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연구가 많았다. 또한 중재자가 교사로 제시된 경우 중재자가 특수교사인지, 통합학급 일반교사인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연구가 많았다. 따라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때 교사의 교직경력 및 통합교육 경력, 통합교육 관련 연수정보, 중재와 관련된 선행경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중재의 현장 적용 시 중

재수행자의 조건을 고려하여 중재를 수행함으로써 중재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김지선, 방명애, 성경선, 2016; 허유성 외, 2010).

셋째, 종속변인 영역의 분석결과 측정가능한 지수로 종속변인을 측정, 측정의 타당성 제시, 중재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최소 세 개의 자료점 제시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는 많았으나, 종속변인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가 많았다. 종속변인 각각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증거기반 지도방법에 대한 반복 가능한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 근거를 구축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이예다나 외, 2014). 따라서 반복 가능한 연구의 수행을 위해 종속변인의 조작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연구 과정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넷째, 독립변인 영역의 분석결과 실험자의 통제 하에 체계적으로 중재를 실시한 연구는 많았으나, 중재 충실도를 측정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중재 충실도 영역은 특수교육 관련 중재의 동향을 분석한 많은 연구에서 가장 부족한 영역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김귀연 외 2014; 김민동, 2015; 노진아, 2014; 문소영, 홍주희, 김유리, 2016; 지은, 안예지, 2016; 홍성두, 정광조, 2015). 중재 충실도는 중재가 중재대상자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었는지,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지표로서 중재 충실도가 제시되어야 보다 명확한 중재의 효과성 검증이 될 수 있다(손승현 외, 2011; Harn, Parisi, & Stoolmiller, 2013; Wainer & Ingersoll, 2013).

다섯째, 기초선 영역의 분석결과 3회기 이상 안정적인 기초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가 진행된 연구가 많았으며, 기초선 상태에 대한 중재방법, 기간, 빈도에 대해 기술하지 않은 연구가 많았다. Horner 외(2005)는 단일대상 연구에서는 최소한 3회기 이상의 안정적인 기초선을 확립해야 반복연구를 위한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초선의 측정은 수집된 자료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에 대한 확신 있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므로(김유리, 양영모, 노진아, 2015) 수행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기초선과 중재 실시 전, 안정적인 기초선 기간에 대한 정보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 실험통제 및 타당도 영역의 분석결과 세 번의 다른 시점에서 세 번 이상 실험효과를 보이는 연구설계와 실험통제를 증명하는 결과의 패턴, 그리고 외적 타당도에 대한 질적 지표를 충족하는 연구는 많았지만, 내적 타당도의 위험요소를 통제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성숙, 연습효과, 중재간섭, 다른 중재의 영향 등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계획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서유진, 나경은, 2012).

일곱째, 사회적 타당도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가 많았으며, 사회적 타당도를 측정한 연구 중 사회적 타당도의 4가지 지표 모두를 충족하는 연구는 한편도 없었다. 최근 들어 사회적 타당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적

타당도에 대한 측정이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타당도는 중재 목표, 과정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는 단일대상 연구의 질적 수준을 알아보는 데 중요하다(Horner et al., 2005). 따라서 사회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중속변인의 사회적 중요성, 중속변인의 변화 크기 및 중재효과, 독립변인 수행의 실용성과 비용 효과성에 대한 측정을 해야 하며, 일반적 환경과 확장된 기간에서 독립변인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2005년부터 2016년 까지 이루어진 초등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연구들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연구 환경, 중재자의 배경정보, 중속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중재 충실도, 기초선, 내적 타당도 등을 보완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통합교육 관련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장애영역과 다양한 통합환경에서 통합교육 중재연구들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 이와 같은 연구들이 계속 축적된다면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만을 질적 지표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급간의 통합교육 관련 단일대상 연구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핵심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였기 때문에 누락된 연구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에 근거한 통합교육에 관한 중재연구 분석을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학교 급간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증거기반 실제의 질적 지표들 중 세부 지표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한계점(Montague & Dietz, 2009)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세부 기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 현장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증거기반 실재를 적용한 중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중재프로그램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6).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고혜정, 김지영 (2013). 지적 장애학생을 위한 국내 여가활동 중재관련 실험연구 분석. **특수 아동교육연구**, 15(3), 317-336.
- 김귀연, 이원희, 박승철, 노진아 (2014). 자폐 스펙트럼 장애학생의 사회성 기술 향상에 관한 단일대상 연구의 문헌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3), 137-160.
- 김동일, 정광조 (2005). 국내 '통합교육프로그램' 학위 논문의 최근 연구 동향. **특수교육학연구**, 40(2), 333-353.
- 김명희, 박승철 (2015). 초등학교 통합교육 실험연구 동향분석: 2005~2014년까지. **특수교육 교과교육연구**, 8(2), 145-175.
- 김민동 (2015). 단일대상 연구의 증거기반 정도에 관한 연구: 정서·행동장애 연구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1(4), 29-49.
- 김보람, 나경은 (2010). 자폐아동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실험연구의 질적 지표에 의거한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2), 21-45.
- 김봉세, 정동영, 정윤우 (2014). 장애학생 통합교육 연구 동향 분석과 시사점.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4(1), 99-128.
- 김유리, 양영모, 노진아 (2015).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단일 대상 연구의 동향 및 질적 지표에 의한 연구방법의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7(1), 51-81.
- 김유희, 방명애 (2015). 학급차원의 사회적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 비장애학생의 장애수용태도 및 학교폭력인식과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4), 201-228.
- 김은경, 방명애, 박현옥 (2014). 자폐성장애 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국내 특수교육 분야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9(3), 169-193.
- 김준홍, 남윤석 (2015). 초등학교 일반교사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질적 연구. **통합교육연구**, 10(1), 99-119.
- 김지선, 방명애, 성경선 (2016). 학교차원의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이 중학교 장애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및 비장애학생과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인식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50(4), 253-275.
- 김진호, 이성용, 차재경 (2015). 정서·행동장애 위험아동에 대한 국내외 실험연구 고찰. **특수 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3), 381-405.
- 김진호, 차재경 (2016). 발달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실험연구 고찰: 단일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2(2), 267-288.
- 남혜진, 심은정, 한경인, 김유리 (2015). 국내 수학중재 단일대상 연구 동향 및 질적평가지표에 의한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4), 409-432.
- 노진아 (2015). 증거기반의 행동중재 전략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특수아동교육연구**, 17(2), 113-132.

- 문소영, 홍주희, 김유리 (2016). 자폐범주성 장애학생 또래관계 증진에 대한 국외 연구 동향 및 질적평가지표에 의한 분석. **자폐성장애연구**, 16(2), 83-109.
- 박지연 (2012).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증거기반의 실제. 서울: 학지사.
- 서유진, 나경은 (2012). 지적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교육 중재연구 분석: 질적 지표 증거기반 중재 기준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4(1), 435-466.
- 서효정, 임해주 (2015). 학습장애 학생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학생 주도적 학습전략 중재연구에 관한 문헌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4), 287-314.
- 성태제 (2015). 교육연구방법의 이해(3판). 서울: 학지사.
- 손승현, 이주영, 문주영, 서유진 (2011). 증거기반 중재 구축을 위한 초등수학 중재연구의 질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3(1), 291-321.
- 양영모, 허동희, 노진아 (2014). 지역사회중심교수 적용 국내 단일대상 연구 동향 및 평가 지표에 의한 분석. **지적장애연구**, 16(4), 283-314.
- 유현아, 방명애, 홍점숙 (2016). 스마트 러닝 기반의 수세기 학습이 자폐성 장애학생의 수세기 수행과 수업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폐성장애연구**, 16(1), 27-51.
- 오연, 방명애 (2013a).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통합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집단 간 학교 폭력의 경향 비교. **놀이치료연구**, 17(2), 125-139.
- 오연, 방명애 (2013b).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과 일반학급 학생의 학교폭력 경향에 대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인식비교. **정서·행동장애연구**, 29(4), 21-38.
- 이동현, 박지연 (2011). 장애이해교육을 포함한 국어과 협력교수가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 학생의 태도와 학급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10(3), 197-217.
- 이미애, 권희연, 전병운, 한성희 (2008). 통합환경에서의 장애유아 중재 연구 동향 분석: 단일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8(3), 21-40.
- 이소현, 박은혜, 김영태 (2009). **단일대상 연구**. 서울: 학지사.
- 이성봉, 방명애, 김은경, 박지연 (2014). **정서 및 행동장애**(2판). 서울: 학지사.
- 이에다나, 조성희, 마지성, 박현정, 손승현 (2014). 증거기반 실재를 위한 국내 쓰기 학습장애 중재연구 질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6(2), 477-500.
- **이옥인 (2008). 통합교육 환경에서 자기결정 학습모형이 정신치제 아동의 자기조정 학습전략 사용 및 사회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3(1), 167-181.
- 장미순, 김은경 (2013).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대상의 또래 활용 중재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29(3), 311-336.
- 정광조, 신현기 (2015). 국내 통합교육 효과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7(3), 203-231.
- **정정은, 이숙향 (2012). 자기결정교수학습모델(SDLMI)을 활용한 교수적 지원이 통합된 중학교 장애학생의 과학과 수업참여행동 및 수행평가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4), 183-205.
- 지은, 안예지 (2016). 자폐 범주성 장애아동을 위한 국내 학업중재연구 분석: 단일대상 연구 증거기반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15(3), 227-250.
- 조상민, 오정민 (2016). 자폐성 장애 초등학생의 문제행동 중재에 대한 메타분석 및 질적 지표 분석. **행동분석 · 지원연구**, 3(1), 1-24.

- 허유성, 박윤, 장은미, 최은순, 양안숙, 김태강 (2010). 질적 지표에 의거한 최근 10년간 학습장애 집단 실험연구 동향 분석 및 학습장애 연구에 주는 시사점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1), 469-498.
- 홍성두, 정광조 (2015). 국내 직접교수 수학 연구의 증거-기반 정도와 효과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6(1), 363-377.
- **홍은숙, 김의정 (2012). 방과 후 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4(4), 1-25.
- 홍점숙, 방명애 (2014). 도식기반 전략교수가 자폐성 장애학생의 수학 문장제 문제해결 수행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0(3), 203-226.
- Bradshaw, C. P., Mitchell, M. M., & Leaf, P. J. (2010). Examining the effects of schoolwide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and supports on student outcomes: Results from a randomized controlled effectiveness trial i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12(3), 133-148.
-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2014).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standards for evidence-based practices in special education. *Exceptional Children*, 80(4), 504-511.
- Espelage, D., Anderman, E. M., Brown, V. E., Jones, A., Lane, K. L., McMahon, S. D., & Reynolds, C. R. (2013).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violence directed against teacher. *American Psychologist*, 68(2), 75-87.
- Flannery, B. K., Frank, J. L., Kato, M. M., Doren, B., & Fenning, P. (2013). Implementing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high school settings: Analysis of eight high schools. *High School Journal*, 96(4), 267-282.
- Harn, B., Parisi, D., & Stoolmiller, M. (2013). Balancing fidelity with flexibility and fit: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fidelity of implementation in schools? *Exceptional Children*, 79(1), 181-193
- Hayness, W. O. & Johnson, C. E. (2009). *Understanding research and evidence-based practice in communication disorders: a primer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Boston: Pearson.
- Horner, R. H., Carr, E., Halle, J., McGee, G., Odem, S., & Wolery, M. (2005). The use of single-subject research to identify evidence-based practice in special education. *Exceptional Children*, 71(2), 165-179.
- Horner, R. H., Sugai, G., Smolkowski, K., Eber, L., Nakasato, J., Todd, A. W., & Esperanza, J. (2009). A randomized, wait-list controlled effectiveness trial assessing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11(3), 133-144.
- Jitendra, A. K., Burgess, C., & Gajria, M. (2011). Cognitive strategy instruction for improving expository text comprehension of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The quality of evidence*. *Exceptional Children*, 77(2), 135-159.

- Keith, J. M., Bennetto, L., & Rogge, R. D.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act and attitudes: Reducing prejudice toward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47*, 14-26.
- Kokina, A. & Kern L. (2010). Social stories interventions for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 Meta-analysi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0(7)*, 812-826.
- Montague, M. & Dietz, S. (2009). Evaluating the evidence base for cognitive strategy instruction and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Exceptional Children, 75*, 285-302.
- Odom, S. L., Buysse, V., & Soukakou, E. (2011). Inclusion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 quarter century of research perspective.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33(4)*, 344-356.
- Odom, S. L. & Strain, P. S. (2002). Evidence-based practice in early intervention/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Single-subject design research.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5(2)*, 151-160.
- Schwab, S. (2015). Social dimensions of inclusion in education of 4th and 7th grade pupils in inclusive and regular classes: Outcomes from Austria.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43*, 72-79.
- Scott, T. & Caron, D. (2005). Conceptualizing 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 as prevention practice within positive behavior support systems. *Preventing School Failure, 50(1)*, 13-20.
- Wainer, A. & Ingersoll, B. (2013). Intervention fidelity: An essential component for understanding ASD parent training research and practice.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20(3)*, 49-62.
- Yu, S. T., Ostrosky, M. M., & Fowler, S. A. (2012). Measuring young children's attitudes towards peers with disabilities: Highlights for the research.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32(3)*, 132-142.

**표시 논문은 분석 대상 논문임.

분석문헌

- 권복남, 최성규 (2007). 또래주도의 역동적 미술활동이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1(1)*, 125-143.
- 강삼성, 이효신 (2012). 학급수준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통합학급 초등학생의 문제행동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8(3)*, 1-35.
- 고승희, 유은정 (2009). 통합학급에서의 교수적 수정 프로그램이 자폐성장애 아동의 문제행동과 수업참여행동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1(1)*, 95-120.

- 김미경, 김은선 (2005). 통합 환경에서의 돌이 참여인원에 따른 단계별 놀이프로그램이 자폐 장애아동의 교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7(4), 1-24.
- 김미선, 박지연 (2005). 학급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초등학교 장애학생과 그 또래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0(2), 355-376.
- 김변영, 박승희 (2007). 통합학급에서의 교수적 수정 중재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과 수업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2(1), 19-49.
- 김주혜, 박은혜, 이경순 (2008). 통합학급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프로그램이 교수행동 및 수업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0(1), 147-167.
- 김완숙, 방명애 (2011). 교수적 루브릭 참조 자기평가가 통합된 장애학생의 수업참여행동과 비장애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5(2), 111-129.
- 곽은정, 신진숙 (2011). 협력교수가 초등학교 지적장애아동의 문제행동과 수업참여행동 및 교사와 일반아동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3(3), 69-90.
- 권지영 (2013). 학급차원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장애학생의 상호작용 고립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6(2), 69-93.
- 문장원 (2011). 긍정적 행동지원이 장애학생의 수업방해 행동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18(3), 301-319.
- 민지영, 김은경 (2011). 긍정적 행동지원이 ADHD 아동의 수업참여 행동과 공격행동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7(2), 1-32.
- 박미정, 김정연 (2016). 초등통합학급에서의 역할 수행 중재가 지적장애아동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51(2).
- 박민휘, 백은희 (2010). 긍정적 행동지원이 통합학급 정신지체 아동의 수업 방해 행동과 수업 참여 행동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5(1), 269-289.
- 박혜진, 신현기 (2010).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지적장애학생의 문제행동과 일반학생의 대응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2(1), 1-29.
- 서유진 (2010). 해결중심 단기상담이 정서·행동장애 학생의 정서문제, 수업중 부적절한 행동, 공격행동 및 긍정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2(2), 377-398.
- 서화자, 이재선, 이은진 (2014).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학습장애 학생의 또래관계증진과 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0(1), 123-148.
- 송인혜, 김은경 (2011). 시각적 지원을 통한 이야기 읽기 교수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기본 감정 이해 및 표현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7(3), 87-122.
- 이미현, 박지연 (2005). 초등학교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한 “우리가 만드는 따뜻한 교실” 프로그램이 비장애아동의 정서능력과 장애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1(4), 23-43.
- 이상경, 김성수 (2008). 또래가 참여하는 마음읽기 접근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아스퍼거 장애 아동의 사회-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17(1), 45-63.
- 이성일 (2008). 통합교육 상황에서 또래놀이가 정신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효과. **인문학연구**, 75, 280-301.
- 이성용, 김진호, 차재경 (2010). 전통놀이가 중재가 장애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일반학생 및 통합학급 교사의 태도에 미치는 사례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3), 185-208.

- 이옥인 (2008). 통합교육 환경에서 자기결정 학습모형이 정신지체 아동의 자기조정 학습전략 사용 및 사회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3(1), 167-181.
- 이옥인 (2010). 자기결정 기술이 포함된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이 통합된 학습장애 아동의 학업 성취 및 자기결정 행동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5(1), 153-175.
- 이은정, 이소현 (2006). 일반교육과정 접근을 위한 교수적 루브릭 적용이 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13(1), 67-90.
- 원상연 (2009). 앵커드수업 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주의집중과 수업참여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발달장애연구**, 13(2), 53-75.
- 정정은, 이숙향 (2012). 자기결정교수학습모델(SDLMI)을 활용한 교수적 지원이 통합된 중학교 장애학생의 과학과 수업참여행동 및 수행평가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4), 183-205.
- 최문지, 박은혜, 김주혜 (2009). 긍정적 행동지원이 장애학생의 통합 학급에서의 문제행동 및 학업활동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1(1), 21-41.
- 신혜순, 김수연 (2013). 또래지원이 포함된 상황이야기 중재가 지적장애아동의 과제수행행동과 일반아동이 지각하는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연구**, 17(4), 29-55.
- 허승준 (2006). 통합교실에서 정착수업이 장애아동의수업 참여와 교실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8(1), 21-47.
- 허승준, 송명희, 김정혜 (2006). 통합학급에서 정착수업이 학습장애아동의 언어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8(3), 47-69.
- 허승준, 장유정, 안재영 (2009). 초등학교 통합학급에서 정착수업이 특수교육요구아동의 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1(1), 51-75.
- 홍은숙, 김의정 (2012). 방과 후 음악활동이 지적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4(4), 1-25.
- 황인영, 김수연 (2005). 교수적 수정이 정신지체 아동의 수업 참여도, 문제행동, 학습 목표 달성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0(1), 179-199

Analysis of the Single Subject Design Studies on Integr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Quality Indicators of Evidence-Based Practice

Sung, Kyung Sun · Bang, Myong Ye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 Woos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ingle subject design studies on integr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quality indicators of evidence-based practice. Thirty four single subject studies published from 2005 to 2016 were analyzed using the quality indicators of evidence-based practice developed by Horner et al.(2005) and CEC (2014).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most widely selected subjects of the studies were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Multiple probe designs were the most widely used. The most widely selected dependent variables were academic engagement and problem behavior. The most widely selected independent variable was positive behavior support and the interventions of all studies were effective for improving dependent variables. Out of 34 studies generalization effects were tested only by eighth studies, while maintenance effects were tested by twenty five studies. Second, the quality indicators of intervention settings, background informations and qualifications of experimenters, operant definitions of the dependent variables fidelity of intervention, baselines, and internal validity were not fully fulfilled.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evidence-based practic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clusive education, students with disabilities, single subject design study

논문 접수: 2017. 03. 05 심사 시작: 2017. 03. 10 게재 확정: 2017. 04. 17